



2번·4번·7번...

나비의 타순 여행

KIA 나지완 상·하위 타선 오가며 맹타
19일까지 홈런 16·타점 52... 지난해 두배
선구안 좋아지며 출루율도 리그 선두 달려

KIA 나지완에게는 야구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2년이다. 지난 시즌 나지완은 KIA의 천덕꾸러기였다. 2015시즌 초반부터 계속된 슬럼프는 '100타석'이라는 김기태 감독의 인내심에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범호의 동반 부진 속 타선이 좀처럼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나지완의 부진은 더 눈에 띄었다. 야구 인생에 가장 길고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나지완은 점점 제 모습을 찾는 것 같았지만 남은 경기가 부족했다. 나지완의 8번째 시즌은 30타수 77안타(타율 0.253) 7홈런 31타점으로 끝났다. 2009년부터 6년 연속 이어졌던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이 중단됐고, 46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79차례 삼진을 당하기도 했다. 나지완은 혹독한 체중감량과 강훈련으로 올 시즌을 준비했다.

개막 후 15경기에서 0.333의 타율로 스타트를 끊은 나지완은 5월 한 달 타율이 0.262로 떨어졌지만 대신 7개의 홈런으로 파워를 보여줬다. 이후 3할 타자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지완은 후반기 첫 경기부터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19일까지 홈런 16개·52타점을 기록하며 홈런 개수도 이미 지난해 두 배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나지완 답지 못했던 선구안이 돌아왔다. 55개의 삼진보다 많은 56개의 볼넷을 골라낸 나지완은 0.460의 출루율로 시즌 초반부터 출루율 1·2위 자리를 오가고 있다. 국과 극의 성격이지만 시즌에도 나지완은 마음 편하게 웃지는 못하고 있다. 동반 침묵으로 부진이 눈에 띄었던 지난 시즌, 올 시즌에는 타선의 동반 상승세 속에 나지완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4번 타자' 타이틀을 지키지

못한 게 아쉽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개막전 신인 4번 타자로 프로 무대에 등장했던 나지완에게는 4번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믿음을 주지 못했던 나지완은 올 시즌에도 확고하게 4번 자리를 선점하지 못했다. 4번 자리를 내어놓은 나지완의 솔직한 심정은 "자존심이 상한다"이다.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다. 최근에는 7번 나지완이 익숙했다. 덕분에 팀 입장에서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막강한 타순을 짤 수 있었다. 김주찬을 시작으로 이범호-브렛 필-서동욱-나지완으로 다이내마이트 타선, 여기에 8번에 배치되는 백용환·이흥구 두 포수도 '한방'이 있는 복병이다. 2번 나지완도 어색하지 않은 이름이 됐다. 김기태 감독은 톱타자로 활약했던 김

호령의 타격 부진 속에 신중길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반기 첫 경기를 2번 나지완으로 풀었다. 출루율 1위의 나지완을 2번으로 꾸러간 경기는 3회 나지완의 선제 결승투런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나지완은 생존을 위해 시즌 초반 파워보다는 세밀함으로 승부를 했다. 지난 시즌 나쁜 공에 손이 많이 나가면서 자신의 승부를 하지 못했던 나지완은 "적착하게 공을 고르면서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 선택은 출루율이라는 결과로 나왔고, 유리하게 승부를 끌고 가면서 점점 특유의 한방까지 보여주게 됐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던 전반기였다. '4번' 나지완이 아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활약을 해온 나지완이 하반기 타선의 키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워터파크, 챔피언스필드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수영장·물 미끄럼틀 설치



챔피언스필드에 물놀이 축제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2016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Hot summer festival)'을 시작한다. 축제는 NC와의 주말 3연전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9경기 동안 계속된다. 2014년부터 금호타이어의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는 '핫 서머 페스티벌'은 야구를 보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어린이팬(유치원생~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수영장과 물 미끄럼틀이 설치된다. 미니 수영장은 가로 12m 세로 6m 규모이며, 물 미끄럼틀은 높이 4m, 길이 8m 크기다. 물놀이장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운영된다. '20명-20분-1회' 방식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주변에는 탈의실과 진행요원(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이 배치된다. 핫 서머 페스티벌 기간에는 챔피언스필드와 테이블석을 제외한 모든 일반 좌석에 대해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입장료 할인은 현장 판매 시

■ 핫 서머 페스티벌 일정

날짜	상대 팀
22~24일	NC
26~28일	kt
8월 2~4일	한화

에만 적용되며, 대표 창구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중고생은 2000원, 대학생은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22일~24일 NC전에서는 중앙 출입구 앞에 기아자동차 K7와 쏘렌토가 전시된다. 금호타이어 전속 레이싱 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이어 이벤트도 진행된다.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 야구장을 찾는 가족 단위 팬들이 야구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면서 "야구와 물놀이를 동시에 즐기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야구(baseball)'와 '문화(culture)'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베이스컬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KIA는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야구장 물놀이 축제를 열었다. /김여울기자 wool@



D-16

양궁 메달색깔 0.2mm로 결정난다

리우올림픽 신기술 공개
과녁 스캔 시스템 도입
정확도 향상·1초내 확인
육상 부정부출발 감지 강화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인 오메가가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선보일 신기술을 20일 공개했다. 오메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양궁 과녁 시스템과 새로운 포토텔 기술, 부정부출발 감지 시스템 등 이번 올림픽에서 새로 도입한 타임키퍼 기술을 설명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양궁에서는 새로운 과녁 시스템(TARGETING SYSTEM)을 선보인다. 이전 대회까지는 특별한 확대경을 이용해 육안으로 점수를

판단했으나 이번 대회부터 '빌트 인 스캔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과녁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스캐너가 중심점으로 부터 떨어진 화살의 가로와 세로 거리를 분석해 0.2mm까지 정확성을 보여준다. 또 과녁이 맞은 순간에서부터 1초 이내에 결과를 내는 빠른 처리 속도도 자랑한다. 육상에서는 부정부출발 감지 시스템의 성능도 개선됐다. 발판에 가해지는 선수의 힘의 정도를 초당 4000회 측정하는 빌트 인 센서를 탑재해 스타팅 블록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감지 시스템은 그 즉시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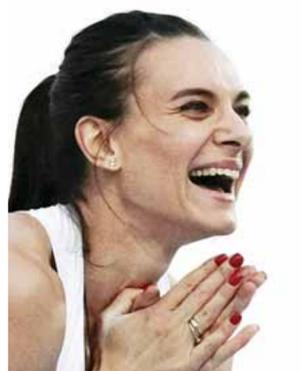
컴퓨터에 힘 측정 결과를 전달해 출발 시 반응을 시각적으로 분석 및 구현하도록 했다. 포토텔 카메라의 성능도 한층 강화했다. 오메가 스캔 '오 비전 미러'로 이름이 붙은 포토텔 카메라는 초당 하나의 세로줄에 1만 개까지 디지털 이미지를 포착해내는 최첨단 이미지 캡처 장비를 활용했다.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해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켰다. 이밖에 이전 대회까지 결승선에 두 개의 포토텔이 광선을 발사해 주자가 결승선을 넘은 순간 시간을 정지시켰지만 이번 대회부터 네 개가 하나로 통합된 포토텔을 육상 경기 결승선에 배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많은 몸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스코어보드의 기능도 새롭게 해 중요한 순간의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12년 만에 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골프에 특화된 스코어보드도 선보인다. 4개의 지정된 홀의 티 옆에 놓이게 될 스코어보드는 레이더 측정 시스템을 갖춰 선수 가 샷을 날리는 순간 스윙 속도와 예상 거리, 타구의 높이 및 방향 등 실시간 정보를 보여준다. 오메가는 그러나 "육상이나 사이클 등에서 마지막 바퀴를 알려주는 '라스트 랩 벨'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은 스위스 라쇼드폼 지역의 볼론도 주조소에서 거의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들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가져온 50년 된 모래를 체에 걸러 주형 안에 단단히 채우고, 1200도 열을 가해 제작한 라스트 랩 벨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정밀한 종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연합뉴스

IOC "러 정부 도핑 샘플 조작" 러시아, 올림픽 퇴출 위기

러시아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4년을 기다린 지구촌 최대 스포츠 잔치에서 러시아 스포츠 스타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일(현지시간) 연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날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된 조직적인 도핑 샘플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24, 은메달 26, 동메달 32개를 따 금메달 순위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전체 메달 개수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오른 스포츠 강국이다. 러시아 선수단이 리우올림픽에 불참하게 되면 개별 종목은 물론 전체 순위

경쟁을 크게 흔들여 놓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AP 통신은 IOC의 결정에 따라 리우에서 볼 수도 있는 러시아 스포츠 스타 5명을 꼽아봤다. 여자 기계체조의 알리야 무스타피나, 여자 수영의 올리아 예피모바(경영)와 나탈리아 이센코(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여자 장대높이뛰기 엘레나 이신바예바, 남자배구 막심 마하일로프가 그들이다. 무스타피나는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이단평행봉 금메달리스트다. 러시아가 불참하면 미국과 중국이 메달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피모바는 런던올림픽 여자 평영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통산 4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러시아 수영의 간판이다. 2013년 10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2014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 16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예피모바는 올해 3월 다시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엘레나 이신바예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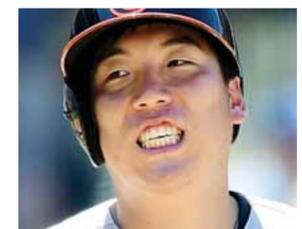
나탈리아 이센코

임시자격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결백을 주장해 FINA 조사 끝에 징계없이 올림픽을 준비해왔다. 세계기록을 28번이나 경신하고 4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이신바예바도 육상팬들이 기다려온 세계적 스타다. 이센코는 올림픽에서만 3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9개나 금메달을 딴 싱크로

나이즈드스위밍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4회 연속 싱크로에 걸린 올림픽 메달을 싹쓸이했다. 미하일로프는 런던올림픽에서 러시아 남자배구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세계 1위 브라질을 꺾고 우승하는 데 큰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LA 류현진



볼티모어 김현수

ML 볼 낙이 없다

류현진·김현수 부상자명단 올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나란히 부상자명단(DL)에 올랐다. 다저스 구단은 류현진을 팔꿈치 염종증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린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1일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나설 예정이던 류현진의 시즌 두 번째 등판도 불발됐다. 류현진의 부상자 명단행은 7월 10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최근 병원에서 팔꿈치 쪽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결과 류현진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류현진은 지난 8월 640일 만의 빅리그 복귀 등판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의 복귀 일정은 안개속에서 빠져있다. 지난해 5월 왼쪽 어깨를 수술하고 1년 이상 재활에 몰두해 온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이 직전인 8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전적 선발로 등판했다. 2014년 10월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이후 640일 만의 빅리그 복귀전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류현진은 4.2이닝 동안 8피안타를 내주고 6실점 해 패전 투수가

됐다. 제구는 나쁘지 않았으나 4회 이후 구석이 현저히 떨어져 경기 운영에 애로를 겪었다. 볼티모어 구단은 뉴욕 양키스전을 앞두고 김현수를 15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리고 터블A에 있던 외야수 홀리오 보본(30)을 메이저리그에 올렸다. 김현수는 지난 11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1회 내야 땅볼을 친 뒤 1루로 뛰다가 오른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꼈다. 부상 직후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김현수는 회복할 시간을 벌었고, 볼티모어 구단 역시 주전 외야수로 도약한 김현수를 곧바로 부상자명단에 넣는 대신 방문경기 일정까지 동행시키며 면밀하게 관찰했다. 그사이 김현수는 대부분의 동작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지만, 미세한 통증이 남았다. 볼티모어 구단은 이날 양키스전을 앞두고 김현수 허벅지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21일까지 뛰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자 부상자명단으로 보내 회복에 전념하도록 조치했다. 김현수의 부상자명단 등재는 허벅지를 다친 다음 날인 12일로 소급 적용됐고, 27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출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